

현장의 작가

윤석남

나무에 새긴 '이 세계 절반'의 이야기

김희선 <본지 기자>

조선의 여인들과 과도기를 살았던 어머니, 그리고 중산층 여인인 자신의 이야기를 나무에 진하게 새기고 있는 윤석남씨. 그녀는 이미 50대를 한참 넘긴 중년 여성이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젊고 신선한 생각으로 삶의 진솔한 체험을 작품에 풀어놓고 있다. 그녀의 나무조각엔 조선시대 억압적인 삶을 살았던 여인네들의 눈물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좌판을 벌여야했던 어머니의 고단한 삶이 스며 있다.



(딸과 아들) 나무에 채색 1993

▲ 작업실에서의 윤석남씨. 원천의 빨래판과 나무조각으로 제작된 여인상은 중산층 여성의 허상을 표현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라는 작품이다.

요즘 우리사회에는 '여성'이라는 접두어가 붙은 문화현상이 풍미하고 있다. 미술분야에서도 여성주의미술이라는 이름으로 여성문제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성문제를 건강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조형적으로도 잘 녹아낸 작품을 대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빈곤층 여성의 현실을 선언조로 경직되게 풀어내거나 여성의 고유한 감수성에만 집착한 작품들을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성주의미술이라는 말까지도 식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새롭게 바라봐야 할 작가가 여기 한 사람 있다.

조선의 여인들과 과도기를 살았던 어머니, 그리고 중산층 여성인 자신의 이야기를 나무에 진하게 새기고 있는 윤석남씨. 그녀는 이미 50대를 한참 넘긴

중년 여성이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젊고 신선한 생각으로 삶의 진솔한 체험을 작품에 풀어놓고 있다. 그녀의 나무조각엔 조선시대 억압적인 삶을 살았던 여인네들의 눈물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좌판을 벌여야했던 어머니의 고단한 삶이 스며 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엄존하고 있는 '아들낳기'에 대한 강박관념, 중산층여성으로서 작가 자신의 일상이 크고 작은 인물조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80년대 중반 남성 위주의 보수적인 화단에 신선한 자극이 되었던 시월 모임의 '반에서 하나로'전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결혼하고 10여년 넘게 가정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날 남편의 한달 월급으로 화구를 사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그녀는 바로 그 모임을 통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물론 82년 첫 개인전도 열었다. 그 전시장에서 처음 만나 뜻을 모은 김인순, 김진숙씨와 함께 시월모임을 만들었고, 남성들에 대한 중산층 주부들의 절망과 분노가 번득이는 작품들로 '반에서 하나로'전을 열게 된 것이다. 용감한 출발이었지만 그 이론적, 체험적 기반은 그리 튼튼하지 못했다. 그래서 세 여성작가들은 헤어졌고 서로 다른 길을 갔다.

윤석남씨는 80년대 후반 정체기를 겪게 된다. 80년대 처절했던 시대상황속에서 그녀는 빈곤층 여성의 힘겨운 삶을 그리길 암묵적으로 요구받지만 그런 그림들은 체질에 맞지 않을 뿐더러 재미도 없었다. 전진이 없는 건 당연했다.

그림그리는 시간보다 전시회, 영화, 연극 등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섭렵하고 여행다니는 즐거움이 훨씬 컸던 시기였다.

90년대를 접어들면서 그녀는 여성문제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모임에 열심히 참가하면서 여성문제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조선시대 사진전을 보러간 그녀는 사진 속의 나이 어린 민며느리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인격까지 몰수당해야 했던 여인들의 삶이 운명처럼 뇌리를 파고 들었다. 그들의 아픔이 더욱 절실했던 것은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에 눈을 뜨기 시작했던 그녀의 변화덕분이었다. 나이가 들면서 그녀는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다섯 자식을 키우기 위해 온갖 힘든 일을 마다



(사고 말고 나무조각과 종이드로잉 1993)

(좌보) 복합재료 1993



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강인한 모성이 그 무엇보다 귀중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삶의 모든 질곡과 고통까지도 포용한 여성의 모성성이야말로 건강한 사회가 뿌리내릴 수 있는 대지와 같은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평면작업이 지겨웠던 그녀는 우연히 길에서 주은 나무토막에 자신의 모습을 새기게 되는 데, 그것이 바로 나무조각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다. 작은 나무토막에 어머니와 자신, 그리고 딸의 얼굴을 하나 둘씩 새기고 그려보다가 본격적으로 나무조각을 할 욕심이 생겼다. 그날로 공구를 샀고, 나무는 목공소나 길에 버려진 것들을 주어다가 썼다. 나무의 험상궂은 흠집과 결을 그대로 살리고, 나무의 표면을 여러번 불에 그을리고 문지르는 과정을 거쳐 세월의 흔적이 짙게 배인 느낌이 나도록 했다. 그 느낌은 지나치게 자연스러워서 비바람에 바랜 흔적인지, 일부러 손질한 흔적인지 여간해선 구분이 되지 않는다.

나무에 새긴 그녀의 이야기는 '대개 우리세대 이전의 것이지만, 지금까지도 결코 바뀌지 않는 모순의 결집체이자 현재를 이뤄낸 의미있는 산물에 대한 것이다. 그녀는 철저한 가부장제의 상



(아들, 아들, 아들) 나무에 채색 1993

징물인 족보를 통해 생각의 실마리를 풀어나갔다. <족보>라는 작품은 족보에도 오르지 못하는 여성에게 지워진 무거운 도덕관념의 허상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피목으로 만들어진 사대부 집 여성이 족보 앞에 처연하게 앉아 있고, 자결을 강요받은 한 여성의 목맨 모습이 한 쪽에 설치된 이 작품은, 유교사회의 엄격한 윤리와 질서에서 벗어날 때 여성에게 남는 건 결국 죽음 뿐이라는 기가 막힌 현실과 그러한 억압을 여성이 더 철저히 감수하고자 했던 모순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또 <아들, 아들, 아들>이라는 작품에서는 아들을 낳기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여성의 몸짓이 여러 개의 나무조각에 담겨져 있고, 병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봉사 3년을 감수해야 하는 시집살이의 힘겨움이 은유된 모녀 삼대라는 작은 조각도 있다. 이 작품들은 남성중심의

이데올로기에 여성이 더욱 철저히 순응했던 여성내부의 부조리함을 파헤친 것들이다.

다음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이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온갖 궂은 일을 마다 않았던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깃든 작품들이다. 한발은 울안에, 다른 한 발엔 세상에 두고 이중의 짐을 졌던 어머니의 희생적인 삶, 양단 치마저고리를 곱게 차려 입은 어머니의 고운 모습, 삶의 터전이었던 시장 풍경들이 하나의 공간 속에 드라마틱하게 펼쳐져 있다. 그녀는 어머니의 강인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제시함으로써 나른하고 안이하게 살아가는 오늘날 중산층 주부들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 남아도는 에너지를 발산할 길 없어 소비적으로 시간을 때우거나 가족이기주의로 푹푹 멍친 중산층 여성의 의식변화야말로 사회의 진정한 변혁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

라고 그녀는 생각한다. 어머니의 모습은 그러한 신념의 반영물로서 우리에게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준다.

중산층 여성의 소시민적인 표정이 담긴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는 설거지를 하다 빨래를 하다 자기실현에 대한 불만족으로 좌절하기도 하고, 자신의 꿈을 자식들에게 이전, 가족이기주의의 함정에 빠지기도 하며, 가정으로부터의 탈출을 꿈꿔보기도 하지만 결국 가정의 울타리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이 솔직하게 표현된 작품이다. 빨래판, 그것도 오랫동안 사용해서 낡을대로 낡은 빨래판들을 재료로 쓴 점이 무척 유머러스하지만 한편으로 닳은 빨래판에 여성의 일상이 투영된 듯 느껴져 씁쓸하기도 하다.

'나무를 다루는 그녀의 자세는 무척 진지하다. 나무의 표면을 어두운 색으로 칠하고 그 표면을 불에 그을리고 그 라인더로 갈고 다시 불에 그을리는 과정을 여러번 반복하면 새 나무는 수십년의 세월을 머금은 듯한 느낌이 된다.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데, 무척 단순하고 함축적이다. 가령, 병어리 3년을 암시하려고 얼굴에서 입을 빼놓고 그린 조각이 그렇다.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꽃무늬가 있는 패턴이미지를 즐겨 그린다는 점이다. 만들고 꾸미는 욕구와 감성이야말로 여성성의 본질이라고 여기는 그녀는 조선시대 여인들의 자수전통을 귀중하게 생각하며 자신도 언젠가 자수의 맥을 작품에 잇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마흔 고개에 접어들면서 그림을 시작했고, 오십이 넘어 나무조각으로 여성 문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작가 윤석남. 진정한 미술작품은 삶의 체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말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그녀는 앞으로 우리에게 이세계 절반의 이야기인, 여성의 삶과 그 모순을 그 누구보다도 진솔하게 제시할 작가임에 틀림없다.